

몇 사람

사도행전 17:32-34



사도행전 17:32-34

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일에 대하여
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
이 그르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리소와 다마리라
하는 어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



○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?

- 창조주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.
 - 본문배경: 스토아 철학자들과 아테네 사람들은 범신론자들 이었습니다. 사울 사도는 종교성이 많았다고 표현합니다 (18절). 이들은 불안과 무질서한 세상에서 자기통제와 절제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
- 바울 사도의 변론: 행복은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(25절)
- 묵상: 세상은 조물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. 피조물로 자신의 신 (우상)을 만들어 내고 좋아하고 아끼지만 끝내 배신을 당합니다. 피조물을 조물주 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때 시작은 화려해 보이지만 끝내 불행의 종착역에 도달 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(롬1:25)



○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?

-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.
 - 본문배경: 금욕주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쾌락주의 에피쿠리스 철학자들은 신들이 인생과는 떨어져 있고 또 바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소한 소원을 빌려 귀찮게 하면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인생은 나름대로 자기통제와 절제, 유혹을 뿌리치고 고요하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.
 - 변론: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바로 그의 소생(가족, 28절)임을 말합니다.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입니다. 이런 말은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. 몇 사람이 믿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.
 - 묵상: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



○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고 하십니다.

-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(30절)
-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.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는 말입니다.
- 피조물을 조물주 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.
- 당부합니다.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꼬인 인생을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.

